

OK금융그룹 법인 택시기사에 바이오OK마스크 기부



바이오OK마스크 기부식에 참석한 OK금융그룹의 탁용원 홍보스포츠본부장과 김인환 부회장, 박복규 택시복지재단 이사장, 문충석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왼쪽부터)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이 속한 OK금융그룹(회장 최윤)이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하 택시복지재단, 이사장 박복규)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9만여명에게 '바이오OK 마스크' 20만여장을 기부했다.

OK금융그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OK금융, 택시 운수업 '응원'

OK금융그룹은 지난 9월 16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택시복지재단에서 바이오OK마스크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한 마스크는 총 20만여장으로 전국의 법인 택시기사 9만1천여명에게 각 2장씩 지급될 예정이다. 세척 사용 시 약 2개월간 사용 가능한 분량이다.

이번에 기부하는 신소재 바이오OK마스크는 바이오케미칼 전문기업 벤텍스(Ventex)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장영실상'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마스크다. 겉면을 발수 코팅 처리하고 바이오 신물질인 헬사클린을 적용해 제작한 것으로 ▲ 항바이러스 ▲ 항균 ▲ 탈취 ▲ 수분 및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을 높였다. 특히 30번

을 세척해도 기존 항균 기능을 90% 이상 유지해 1장으로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OK금융그룹에 따르면 '시민의 발'인 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 대표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마스크 기부를 결정했다.

택시운수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객 갑갑 등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컨설팅 기관 세종경영자문에 따르면 올 4월 택시 운수업 카드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지난해에 비해 약 17% 감소했다. 또 불특정 다수의 고객과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는 업종 특성상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는 OK금융그룹의 김인환 부회장, 탁용원 홍보스포츠본부장을 비롯해, 박복규 택시복지재단 이사장,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장성호 부산택시조합이사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련위원장, 구수영 민주택시노련위원장 등 택시복지재단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이웃에게 힘이 되고, 국가 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종합금융서비스그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